

# 포스텍, 신풍제약에 C형 간염 치료기술 이전

"상용화 시 연 6조원 규모 C형 간염치료제 시장 성공 진입"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입력: 2016-08-19 14:00:00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신풍제약이 '히알루론산 기반 C형 간염 치료제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세광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지난 5년간 미래부의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단계별 정액기술료 5억원에 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현재 C형 간염 치료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위스 로슈(Hoffman-La Roche)사의 페가시스(PEGASYS), 미국 머크(Merck)사의 페그인트론(PEG-Intron)과 같은 폐길화 인터페론을 리바비린(Ribavirin)과 병용하고 있다.

하지만 폐길화 인터페론은 체내 투여 시 혈관을 따라 간 이외에 다양한 신체장기로 전달되어져 간에서의 치료효능이 낮고 반복 투여 시 탈모, 빈혈, 폐부종 등 다른 신체장기에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C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성 물질인 인터페론 알파에 기존의 합성고분자 대신 생체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을 접합시킨 것으로 폐길화 인터페론에 비해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신체장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실험 결과 현재 사용되는 C형 간염치료제인 폐길화 인터페론 보다 효능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수는 "이번 기술이 상용화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C형 간염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용어설명

▶ 폐길화 인터페론: C형 간염 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인터페론 알파에 합성고분자인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접합한 물질

▶ 인터페론 알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세포에서 생성되는 당(糖)단백질로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물질

▶히알루론산: 동물의 관절, 안구의 유리체, 뱀줄 등에 들어 있는 생체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투여 될 경우, 간 조직에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21810520519893&type=1>